

전남교육청, 본예산 5조시대 연다… 교육 대전환 ‘첫발’

지역상생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학생 미래역량 강화 2577억 편성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전라남도교육청이 2023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일 전라남도 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교육청 본예산 앤이 5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력 강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조성,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조 3,330억 원 대비 6,747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4,487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172억 원,

자체수입 117억 원, 전년도 이월금 91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첫째, 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학교지원에 2,57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 학생교육력 향상 2,269억 원 ▲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확대 112억 원 ▲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3억 원 ▲ 수업이 가능한 교실 만들기 27억 원 ▲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 166억 원 등을 반영했다.

둘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조성에 4,611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으로는 ▲ AI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 25억 원 ▲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186억 원 ▲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교육 지원 114억 원 ▲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 I-SW 교육 지원 299억 원 ▲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학습공간 구축 3,601억 원 ▲ 미래교육 대비 정보화 인프라 구축 386억 원 등이다.

셋째,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에 6,418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 학교스마트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14억 원 ▲ 학교방역인력 및 물품지원 124억 원 ▲ 학교노후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3,988억 원 ▲ 급식 및 교과서 등 무상교육지원 1,308억 원 ▲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복 및 체육복지원 130억 원 ▲ 등·하교 0원버스 추진 등 통학버스운영 366억 원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 488억 원 등이 반영됐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에 448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 학교밖 청소년 지원 16억 원 ▲ 학업중단예방 강화 37억 원 ▲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72억 원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15억 원 ▲ 물품박람회 개최 3억 원 ▲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28억 원 ▲ 지역과 함께하는 직업교육 27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선정

경남도, 전국 최대 국비 확보

77개 사업 1460명 일자리 지원
상생기반대응형 등 3가지 유형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규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사업 53억 원, 계속사업 81억 원 등 총 국비 134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77개 사업 1460명(신규사업 492명, 계속사업 968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역 혁신형 ▲ 상생기반대응형 ▲ 지역포용형 세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지원계획은 우선, 지역혁

신형 16개 사업 409명 모집에 102억 원 투입하여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최대 2년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며, 3년차에는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지역 내 취·창업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상생기반대응형은 11개 사업 40명 모집에 6.6억 원 투입하여 지역 내 청년의 창업초기 성장과 주가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다.

창업 청년에게 시제품 제작, 공간 임차료 등에 필요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차에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청년을 신규로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 연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가 포항을 연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예정인 연구산업진흥단지 유치에 나섰다.

경북도 연구산업진흥단지 포항 유치 ‘온힘’

포항시와 워킹그룹 구성

경북도가 포항을 연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예정인 연구산업진흥단지 유치에 나섰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연구사업자가 집적돼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이 있으며 관련 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기부의 심사로 지정된다.

도는 단지 지정을 위해 국내 최고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 포항TP 등

주변 R&D 기관 관계자 및 포항시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가지는 등 준비를 해왔다.

지난 8월에는 9개 기관이 참여한 포항 R&D 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어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쳤다.

또 관련 기업을 방문해 해양·바이오, 나노·반도체, 에너지소재 등 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포항이 최적지라는 점과 2025년까지 관련 산업 시장규모를 40조 원(2020년 22조 원)으로 늘릴 예정인 정부 동향을 설명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신보, 보증사업평가 ‘전국 1위’

매년 최대 규모 보증잔액 기록 간신히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사업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 및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특례보증 지원에 매년 최대 규모의 보증잔액 기록을 간신히 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

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용보증활성화를 통해 정책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중기부 보증사업평가에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1위를 차지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교육

영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개발을 위한 농업인들의 기본 역량함양과 가공제조 전문기술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8회 총 30시간 과정을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에서 HACCP기초 및 식품 위생법 이해,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세무실무의 이해, 추출농축 가공 실습, 선식 가공 실습 등 농산물 가공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게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양시

벼 경영안정대책비 9.5억 지급

광양시는 각종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생산비는 급등했지만, 쌀값은 되레 하락하면서 농가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12월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000m²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부산시, TPO 제10회 총회 개최

부산시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메단에서 온·오프라인으로 ‘TPO 제10회 총회’를 개최했다.

‘관광정상화와 디지털 관광’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총회에는 회장 도시인 부산시와 공동회장 도시인 전주시, 문경시를 비롯해 집행위원 도시, 인도네시아 회원 도시 등 약 200여 명이 현장에 참가했다.

부산은 TPO 회장 도시로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를 적극 홍보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목포시

민간협력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보건의료사업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시 보건의료협의체가 출범했다.

보건의료협의체에는 목포시의사회, 목포시치과의사회, 목포시한의사회, 목포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남지부, 목포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효노인전문요양병원, 목포아동병원, 목포시소방서 등 의료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1억 농가 지급

자격요건 검증 8600여 명 대상

광주시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1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자치구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농가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3~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8600여 명(4813㏊)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중 농가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총 24억 원(1840호)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77억 원(6760명)이다.

/광주=양수녕 기자